

# 차이나펀드 ‘반토막’... 투자자들 ‘멘붕’

### 주부·직장인·자산가 등 광주·전남서 400억 투자된 듯

### 전문가들 “선불리 움직이지 말고 中정부 정책 지켜봐야”

광주의 한 대기업에 다니는 김모(47)씨는 비자금 1000만원을 지난 4월 중국 펀드에 투자했다. 연초 중국 펀드에 투자해 큰 수익을 냈다는 직장 선배의 추천을 받았기 때문이다. 안 그래도 작년 하반기부터 주식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중국 펀드로 큰 수익을 냈다는 선배 말이 더욱 매력적으로 들렸다. 하지만 지금은 당장 환매를 고민해야 하는 처지다. 김씨가 펀드에 가입한 지 딱 두 달만인 6월 중순부터 고꾸라지기 시작한 중국 증시는 바닥을 모른 채 추락했고, 수익률은 한때 40% 넘게 하락했다. 김씨의 펀드 수익률은 최근 이틀새 중국 증시가 반등한 덕인지 -24.9%를 기록했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몰라 한숨만 쉬고 있다.

중국증시 급락에 중국 펀드 투자자들이

여기저기서 ‘아우성’이다. 특히 지난해 중국펀드로 큰 수익을 본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광주에서도 직장인을 물론 주부나 청년 퇴직자까지 중국 펀드에 올인한 경우가 많아 거의 ‘멘붕’에 가까운 상태다. ‘중국 증시에 투자할 것’의 적극 권유하고 나섰던 광주·전남지역 증권사 직원들도 덩달아 고민에 빠졌다.

13일 증권가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부터 급등 랠리를 펼치던 중국 증시가 페니 상태다.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작년 1년 동안 53%나 급등한 후 올해도 6월까지 최고 60% 이상 급등했다. 하지만 과도한 폭등으로 인해 생겼던 거품이 꺼지면서 주가가 급락하고, 급락으로 인해 돈을 빌려 투자했던 주식이 반대 매매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면서 주가가 폭락했다.

상해종합지수는 6월 한 달만 고점 대비 17% 이상 빠졌고, 이달 들어 최고 21%나 추락하기도 했다. 바닥을 모르고 주저앉던 중국 증시는 9일과 10일 연달아 급등하며 이틀간 총 10%가량 반등해 일단 추락을 멈춘 상황이다.

주가 급락에 중국 증시에 투자하는 펀드 수익률도 추락했다.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중국 본토에 투자하는 펀드의 최근 1개월 수익률은 -24.7%다. 1개월 전에 투자한 투자자는 한 달 만에 투자금의 25%를 날렸다는 의미다. 실제로 광주·전남 지역에서 인기가 높았던 ‘삼성중국본토중소형FOCUS’와 ‘KB중국본토A주권’은 최근 한 달 새 각각 36.44%와 26.97% 하락해 손실을 봤다.

문제는 추락하는 중국본토펀드에 이미 엄청난 돈이 몰려있다는 점이다. 연초 이후 중국본토펀드 유입액은 총 1조3000억원을 넘는다.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한 최근 1개월 동안 유입된 돈이 2900억원 수준이니 1조원이 넘는 돈은 주가가 추락하기

전에 투자된 돈이다. 광주·전남 지역에서 최소 400억원이 넘는 돈이 투자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상황에 ‘선불리 움직이지 말 것’을 조언했다. 운자중 NH투자증권 광주WMC센터장은 “지금 너무 급락한 상황인데, 급락했을 때는 움직이지 않고 지켜보는 것이 맞다”며 “다만 갑자기 변동성이 커져 선불리 움직이기 애매한 상황이고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임원진 삼성증권 광주지점장은 “중국 시장이 ‘바닥이다’(추가 하락은 없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중국 정부의 정책으로 주가가 상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의 통제로 시장을 잡아가지 않겠느냐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정책 의지가 분명한 만큼 펀드 환매로 매도에 가세하기 보다는 정부 정책을 지켜보는 것이 유리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061.52 (+30.35)	금리 (국고채 3년) 1.80%
▲ 코스닥 749.46 (+18.74)	▲ 환율 (USD) 1130.60원 (+0.90)

## LH, 광주·전남 5171억 토지·주택 공급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 올해 하반기 광주·전남지역에 5171억원 규모의 토지와 주택 공급에 나선다.

13일 LH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하반기 공급되는 주요 토지는 광주효천1지구 공동주택 2필지와 광주효천1지구 구이주자택 36필지, 광주용산 공동주택 1필지 등이다. 또 현재 수의계약 중인 여수엑스포지구 일반상업용지 5필지와 주자장용지 2필지, 종교시설용지 1필지, 대불공단 상업용지 3필지 등도 공급을 앞두고 있다.

주택공급은 광주 지산·광주 양동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수의계약 중인 광주 혁신·목포대성·목포남교 판매시설, 여수엑스포타운 상가 등이다. 공급예정 토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인터넷 토지청약시스템에, 공공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LH 광주전남본부는 올해 상반기 부동산 경기 호조와 적극적인 공급 추진으로 조성용 토지와 비축토지 1383억원, 임대아파트에서 분양전환 및 국민, 영구임대, 분양주택 등 공동주택 2076억원 등 총 3459억원을 공급한 바 있다. 특히 토지공급 중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용지는 상반기 1차 출시해 23필지·7만6000㎡를 조성위가 이하인 295억원에 공급했다.

산학연클러스터용지 구축계획이 변경된 후에는 클러스터 용지의 시장여건, 희망매수업체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세각한 2차분 33필지·11만4000㎡도 440억원에 공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토지판매부(062-360-3175)나 주택판매부(062-360-3153)로 문의하면 된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 광주·전남중기청 창업보육실 입주자 모집

### 24일까지 3명 신청 접수

### 시제품 제작 장비 등 지원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이 24일까지 창업보육실 신규입주자 3명을 모집한다. 입주대상은 시제품제작이 필요한 예비 창업자이며 기술성 및 창업 의지력을 평가해 선정된다. 입주기간은 1년이며, 연장이 가능하다. 입주자는 창업보육실, 제품특성 평가·해석·설계를 위한 고가 소프트웨어와 시제품 제작자의 셀프제작 장비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창업보육실은 그동안 14명의 졸업자를 배출했다. 2012년 9월 졸업한 김영진 주경하이텍 대표의 경우, 광주·전남중기청이 보유한 각종 소프트웨어와 시험·연구설비를 활용해 자동차 부품에 대한 성형해석, 부품제작 조건이 만족한 3D모델링 금형 설계기술력을 갖춘 뒤 창업에 성공하기도 했다.

예비·신규창업자는 광주·전남중기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제출하면 된다. 문의(360-9154).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롯데백화점 바캉스용품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13일 백화점 바캉스용품 매장을 찾은 고객들이 최근 유행하고 있는 선글라스를 착용해 보고 있다. 본격적인 휴가시즌을 앞두고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오는 19일까지 ‘바캉스용품 특집전’ 행사를 진행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 한전, 필리핀서 154억 수출 상담 성과

### 발전소 운영기술 높은 관심

한국전력이 지난 8~10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발전소 운영기술 수출 상담회를 열고, 1400만달러(154억원) 상당의 수출 상담 실적을 올렸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수출 상담회에는 필리핀, 베트남 등 아세안 7개국의 에너지·플랜트 관련 정부 및 산업계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한전의 우수한 발전 운영기술과 기자재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상담회에서는 한전 전력연구원이 개발한 보일러 연소 제어시스템 등 우수

기술 8건에 대한 수출 상담이 이뤄졌다. 또 한전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에 성공한 맥스파워, 비츠로테크 등 협력 중소기업 8개사도 바이어들과 일대일 상담을 하며 기술 홍보 및 마케팅을 전개했다.

한전은 8~10일 마닐라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 한국전력연구원 등이 공동 개최한 ‘한·아세안 그랜드 프로젝트 파트너십 2015’에 참가해 발전소 운영기술 등에 대한 수출 상담회를 가졌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 트렉스타 ‘핸즈프리’ 신발 해외서 인기

### 6개월 만에 매출 40억 돌파

### 어린이용 키즈라인 출시예정

아웃도어 브랜드 트렉스타(treksta.co.kr)는 손을 대지 않고 신고 벗을 수 있는 ‘핸즈프리’ 신발(사진)을 해외시장에 내놓은지 6개월만에 40억원(1만5000켤레)의 매출을 올렸다고 13일 밝혔다.

트렉스타는 지난해 말 핸드프리 신발을 국내에 처음 선보인 뒤 올 상반기부터 수출을 시작했다. 현재 캐나다, 슬로베니아, 스페인, 포르투갈, 덴마크, 영국, 스위스, 터키, 일본,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등 11개국에 핸드프리 신발을 판매하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는 올 초 ‘2015 도쿄 선물박람회’에 이 신발을 출품해 큰 인기를 끌면

서 전체 수출 물량의 절반에 가까운 7000 켈레를 팔았다.

핸즈프리 신발은 두 손을 사용하지 않고 신발끈을 조이고 풀 수 있는 신기술을 적용했다. 신발을 신은 상태에서 뒷창 아래 핸드프리 장치를 바닥에 대고 가볍게 당기면 자동으로 신발 끈을 조일 수 있고, 뒷창에 있는 고리를 반대쪽 발로 누르면 신발끈을 풀 수 있다. 트렉스타는 핸드프리 신발이 해외시장에서 인기를 끌면서 조만간 어린이용 키즈라인 출시도 계획하고 있다.

권동철 트렉스타 대표는 “올해 다양한 가격대의 신제품을 출시해 해외 시장 점유율을 2.5배 이상 성장시켰다”며 “특히 신발을 벗는 좌식문화가 형성된 아시아권 국가를 집중 공략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6

당신의 광장! 젊음의 광장! U-square

수비드(sous-vide) 백갈비,삼겹살 & 돈까스

## 아이엘리시아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
떡갈비 12,500원	8,500원	5,000원
백갈비 14,500원	9,000원	5,500원

수비드 삼겹살, 떡갈비, 돈까스 등 50여가지 다양한 메뉴 무한리필  
(평일 16시이전 입장고객 1,000원 할인)

최상의 식재료에 최고의 셰프의 감성을 담은 음식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합니다.

예약문의 062)671-1199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광천동)    유·스퀘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F

##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시장 표창 · 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NAVER 주스(D) 대신프리모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타운 신기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대산프리모가발